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part 1

14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영웅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구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팔을 잃은 자, 다리를 잃은 자, 눈을 먼 자, 청력을 잃은 자, 불구들... 젊고, 강하고, 건강한 그들은 선혈이 낭자한 세계의 도축장으로 출발했다. 아직 생명은 그들 앞에 있었다. 고작 몇 달 후, 몇 주 후, 며칠 후 그들은 초추검 혹은 불구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유럽 전쟁을 일으켜, 인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나가서 다른 나라의 동료 노동자들과 싸우게 만든 자들은, 그들을 "영웅들"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그들은 이제 상을 얻었다!, 그들은 곧 훈장을 단 채 걸어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은 경의를 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영웅"은 고향 마을과 도시로 돌아가서는,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한다, 그가 경의와 즐거움이 기다리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는 새 고통과 환멸만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의 마을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줄어 들었다. 사내들은 전쟁으로 끌려갔고, 가족들은 징발되었다... 세금은 반드시 걷어져야 되지만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바쁘다, 그들은 초췌했으며 굶주렸다, 울며 녹초가 되었다. 불구가 된 영웅들은 마을을 돌아다닌다, 몇 명은 훈장 하나, 몇 명은 훈장 두개를 달고 있다. 오직 그가 얻는 경의는 그의 가족이 그를 남의 빵을 축내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비난 뿐이다. 그리고 그 빵은 배급된 것이었다!

도시로 돌아간 "영웅"도 더 나을 것은 없다. 그는 "경의"를 만난다, 슬픔과 기쁨으로 우는 어머니를 만난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 늙어가는 어머니의 눈은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미소 짓는다. 하루, 이들 동안은 그들은 야단법석을 떨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부터 노동자들이 병약자를 돌볼 시간과 여유가 있었던 말인가? 항상 사람들은 할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 게다가, 시대가 다르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생계비가 오른다. 전쟁!.. 재난과 전염병은 전쟁과 동반하기에 아이들은 병든다. 아내는 한 번에 수천 가지 일을 하려한다. 그녀 스스로와 "가장"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한다.

차르의 연금은 어떠 한가?

그 돈이 얼마인가?, 외다리에게 부츠 하나 사줄 돈으로도 쓰이지 않을 것이다.

장교들과 부상입은 장군들은 당연히 "계급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일반 사병들-전직 노동자, 농민, 장인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누가 그의 운명에 신경 쓰는가?. 국가의 권력은 인민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 지주들, 기업가들, 영주들과 주인들의 손에 있다. 국가의 재정은 전쟁에서 수백, 수천, 수만이 죽은 "영웅적 병사들"의 손에 있지 않다, 똑 같은 고관대작들인 지주, 기업가, 국가 관료들 같은 차르의 하수인들 것이다.

처음에는, 기억이 생생하고 전방의 대포가 소리를 낼 때, "영웅적 병사들"은 기억될 것이다. 여러 협회, 자선 단체들과 적십자는 형편없는 양의 지원품과 함께 지원을 올 것이다. 첫 해, 그 다음해가 지난 후. 평화가 왔다, 사람들은 원래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상입은 대령들과 장군들은 자신들 차에 탈 것이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자기 자신을 잘 챙겼다, 현금을 쥘여놓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병사들의 보급품으로 채웠다, 그리고 "영웅들"은 불구가 되어서는 훈장을 댔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정말 교회 앞 거지들에 합류해야 하는가?

조국의 영웅이자 구원자에게 기다리는 운명치고는 기쁜 운명이 아니다, 10개의 훈장을 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차르정은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지주와 기업주들의 가슴은, 주인들의 가슴은 그의 부상을 위해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뭘 상관이란 말인가? 자기 형제가 고통 받으며 나라를 떠돌면서 자기 운명을 저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신사"도 아니고 그저 "하층민"들 중 하나에 불과한데 말이다. 하층민들인 노동자, 농민, 장인들은 명확히 그들의 "지주와 주인"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율타리 안에서 굶어죽음 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인민들이 "영웅들"을 대변하지 않는 이상, 권력을 자신들의 손에 넣지 않는 이상, 국가 재정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불구가 된 영웅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러시아인이든 독일인이든, 병사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웠냐고 물어보아라, 어쩌서 형제들인 이웃 국가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불구로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들은 답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세르비아인들을 위해 싸웠을 지도 모른다, 어쩌면 러시아를 공격한 게 독일이었을지 모른다.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농민.병사들은 "우리는 독일인들로부터 토지를 가지러 간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 전쟁이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었단 말인가?, 그걸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다. 러시아인들만이 어둠 속에서 왜 자신들이 인민들을 찢르고, 총검을 휘두르고, 불구로 만드는 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병사들도 전쟁의 원인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그들 중 하나에게 물어보면, 각각 다른 이유를 댈 것이다.

독일인들은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러시아의 코사크들이 베를린으로 진격 중이다. 우리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로 가 러시아를 관료제의 덫과 독단적이고 무법적인 차르의 신하들에게서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인들의 “자유”를 위해 죽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나약해서 그들의 내부의 적들, 부패한 장관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압제자인 지주들을 다루지 못한다. 어서 그들을 돕자!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대중적인 자유를 향하는, 권리와 자유를 향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은 카이저와 그 하수인들, 독일 지주들과 기업가들이 독일인들에게 불러준 유혹적인 노래였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다, 그저 믿었다. 자본가 신문들은 전쟁에 대해 수많은 간행물들에서 거짓말을 퍼뜨렸다, 정부는 전시 검열제도를 도입하여 비통함의 단어 한마디도 인쇄되지 못하게 했으며 노동계급의 절친들을 감옥에 넣었다. 독일인들은 속았다, 러시아 병사들이 속았듯이 그들은 갈리시아로 “토지”를 위해 진격하는 거라고 확신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와 장군들, 장관들, 은행가와 기업가들이 또 다르게 전쟁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독일인들이 1870년 정복한 알자스-로렌의 영토를 그들로부터 되 찾아올 시간이었다. “영광스러운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들아!... 그대들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 그대들은 모든 정치적 권리들을 집에서 얻었다!.. 하지만 옆집, 이웃하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카이저의 굴레 아래 신음한다!.. 어서 독일인들을 구하자! 우리는 독일에서 카이저를 내 쫓고 독일 공화국을 세울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고결한 프랑스는 독일인들을 “해방” 시키고 카이저에게 종말을 선사하기로 정했다. 나쁜 이유는 아니다!, 누가 카이저와 차르가 필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좀 가까이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 카이저와 차르는 친구였고, 서로 안부 차 방문하는 사이였다. 여러 나라의 자본가들은 공장과 무역회사를 세우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강도질하기 위해, 대포와 장갑차 생산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같이 일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나라의 모든 차르들과 모든 자본가들이 “우리는 가서 이웃들을 해방해야 한다, 우리는 권리와 정의, 평등과 번영을 이웃들에 전해줘야 한다!” 라는 고결한 열정에 사로 잡혔다.

독일인들은 러시아를 차르정의 덫에서 구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프랑스인들은 독일인들을 카이저의 정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카이저와 차르는 아직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전쟁에 감사하게도 자본가들은 부를 키웠다. 그들은 군 보급품의 1 루블 당 20-40코페 만큼을 “벌었다” 그리고 그 보급품은 수천, 수만 루블의 값이었다. 갑자기 “강대국”들이 크게 신경 쓰기 시작한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땅과 외국 땅에 빼로 흩뿌려졌다. 외국인들에 대한 “해방”이 정말 이 전쟁의 이유인가? 아직도 이 동화를 믿는 자가 있는가?.

새 예를 들자, 영국은 전쟁에 나중에 참가 한 유일한 이유가 한편으로는 벨기에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전쟁기계”, 곧 군사주의를 패배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것처럼 겉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영국 군주정은 어떻게 들쭉이는가? 우선, 영국은 독일의 식민지, 영토를 차지할 기회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영국은 벨기에인들에게 독일의 지배 밑이든 영국의 지배 밑이든 누구의 지배권 아래 놓이는 걸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벨기에는 벨기에이다, 하지만 한 쪽은 반드시 다른 영토와 인구를 가져가야 한다... 독일인들은 그들을 무엇을 위해 필요 해하는 것인가?!

이것은 “전쟁기계”에 대한 투쟁에도 적용된다, 영국은 “독일 군국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로이센인들을 저주하며 분개함을 표출한다. 독일 군국주의자들이 지금은 길들여지고 순한 양떼가 되어버린 독일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자유의 정신을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맹렬하다. 대부분은 사실이다. 문제는 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천에서는 영국 정부는 “독일 군국주의자”들을 저주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배우려 하며 “독일식 군국주의”를 자기 나라에 이식하려 한다. 전쟁 초기부터 영국에서는 인민들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독일과 싸우는 이유인 군국주의를 자국에 이식하기로 결정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직업 군인제를 징병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영국의 백만장자들과 약탈꾼들은 반발을 분쇄하는데 성공하여 징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가 외국을 군국주의의 악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번 들어 났으며 자신의 인민들에게도 똑같은 악을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독일의 본보기가 얼마나 영국 정부의 마음에 들었나 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미 했던 것들과 그리고 “군사체제”를 생산에도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군 간부들에게 종속시키고, 파업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권리를 제거하고, 국가에 그들을 묶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말그대로 “군사 노예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등 모든 교전국들에도 도입 되었다. 모든 종류의 제한과 모욕을 감수하며 쥐꼬리 만한 임금을 위해 일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선에 보내져 “적”의 총탄을 만히 하게 될 것이니. 영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부정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맞서는 새로운 공격에 대해 용감하고 완고한 싸움을 건설하고 있다. 그들은 새 형태의 노예제에 맞서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는다... 영국정부는 독일이 보인 본보기를 마음에 들어 하며, “프로이센 군국주의”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든다.

이것이 사실상 현 상황이다, 그 이유, 이웃나라에 전쟁을 선포한 이유인 바로 그 악이 자국에도 도입되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러시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 갔다, 그들의 고향에서 똑같은 차르 체제 폭정이 도입되었는데 말이다... 프랑스인들은 독일인들을 위해 “자유”의 검을 빼 들었다, 그리고 프랑스가 수년간 몰랐던 억압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단 한명만 주변을 유심히 돌아보아 이것들이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들이 아니라는 것, 한 나라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인민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아채면 된다... 이 전쟁은 다른 원인, 목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 (part 2에서 계속)